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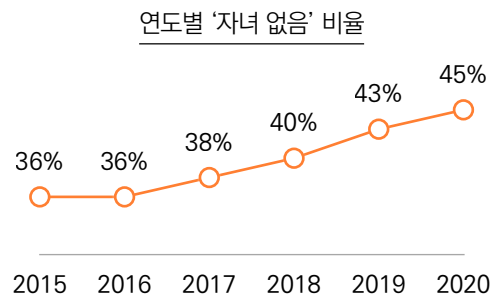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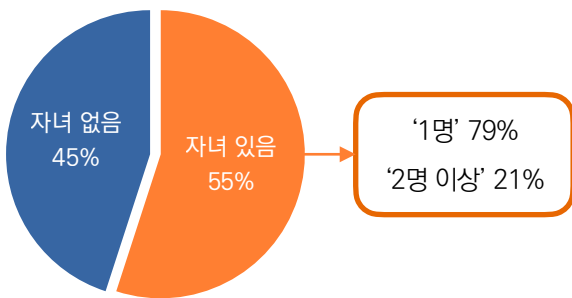
1. 2020년 신혼 부부 통계



2015~2020년 초혼 신혼부부 100쌍 중 45쌍, '자녀 없다!'

-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~2020년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혼부부의 무려 45%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5년 36%와 비교해 5년 새 9%p 증가한 수치다.
- 신혼부부 수는 감소(2019년 대비 2020년 6% 감소)하는 상황에서 무자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우리 눈앞에 왔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.

[그림] 2015-2020 초혼 신혼부부 자녀 유무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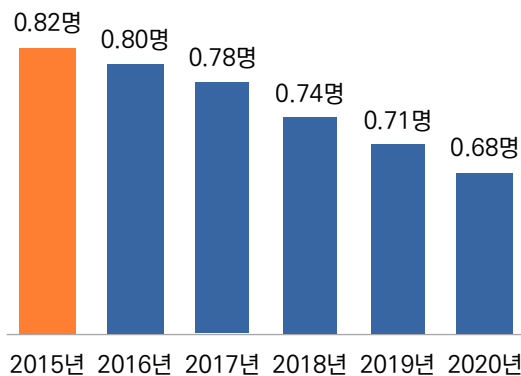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신혼부부 통계', 2021.12.9(2015.11.1.-2020.10.31.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118.4만 쌍 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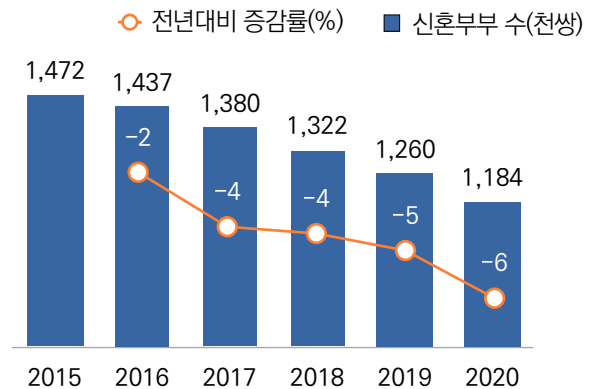
●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, 2016년 0.80명 → 2020년 0.68명으로 5년 사이 17% 감소!

- 신혼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, 자녀가 있는 부부도 그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. 2015년에 평균 자녀수가 0.82명이었는데, 2020년에는 0.68명까지 떨어져 5년 사이 17%가 감소했다.
- 전체 신혼부부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16년 144만 쌍에서 2020년 118만 쌍으로 5년간 18% 감소했다. 특히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, 2020년에 -6%로 감소율이 컸는데, 코로나19로 인해 결혼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.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



[그림] 신혼부부 수(쌍) 추이(초재혼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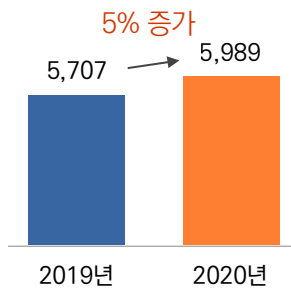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신혼부부 통계', 2021.12.9(2015.11.1.-2020.10.31.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118.4만 쌍 대상, 2019년 이하 수치는 각 연도별 '신혼부부 통계'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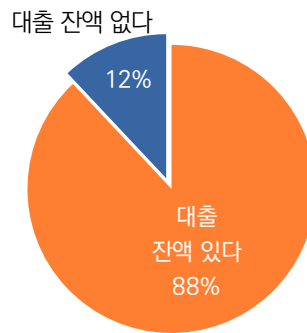
● 신혼부부, 지난 1년 사이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3배 이상 더 높아!!

- 신혼부부(초혼)의 월 평균 소득은 5,989만 원으로 2019년(5,707만 원)에 비해 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대다수(88%)의 신혼부부(초혼)는 금융권에 대출을 안고 있는데, 대출 잔액은 1억 3,258만 원으로 2019년(1억 1,208만 원)에 비해 1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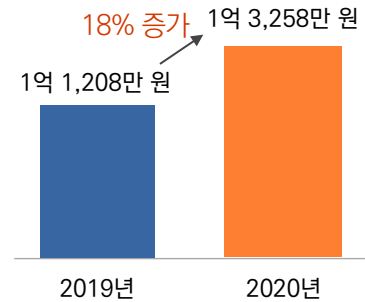
[그림] 초혼 신혼 부부 월 평균 소득 (맞벌이 vs 외벌이)

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대출 현황

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대출 잔액(중앙값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년 신혼부부 통계', 2021.12.9(신혼부부는 2015.11.1.-2020.10.31. 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)